북한소설 『피바다』의 공산주의 인간학과 성숙의 플롯*

송 명 희**

차 례

I. 서론	III. 『피바다』와 성숙의 플롯
II. 『피바다』와 공산주의 인간학	IV. 결론

I. 서론

『피바다』는 『꽃 피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과 더불어 북한문학의 최고봉이며, ‘북한문학예술의 꽃’, ‘3대 고전’, ‘불후의 고전적 명작’ 등으로 일컬어지는 작품이다. 1936년 초 조선인민 혁명군의 주력부대였던 김일성 부대의 문예선전대에서 처음 공연되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 작품을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직접 각본을 쓰고 공연까지도 직접 지도한 것으로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혁명연극은 그 내용이 작가불명상태로 구전되어 항일혁명투사들에 의해 상연된 집체창작으로 보아야 한다.¹⁾

* 이 논문은 2003년 부경대학교 기성회계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짐.

**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신형기, 『북한소설의 이해』, 실천문학사, 1996, 107쪽.

1930년대 이래 <혈해> 또는 <혈해의 노래> 라는 제목의 연극·가극·영화 등의 여러 장르로 복제되어 오던 『피바다』는 1973년에 집체작인 장편소설(평양, 문예출판사)로 완성된다. 장편소설 『피바다』는 “가극 『피바다』를 토대로 주체 시대에 이르는 여러 논의의 결과를 충실히 수용한” 것이며,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주체문예와 주체소설의 형태를 정식화하는 본보기로서 제시되었다.”²⁾ 따라서 북한에서는 이 작품을 ‘사회주의 문학예술이 본받아 할 불멸의 전형’으로 평가한다.³⁾ 즉, 김일성이 제시한 주체적 무장투쟁 노선이 추앙되어 있고, 인민들이 모두 일어나서 일제의 폭압 속에 피바다가 된 참혹한 현실을 타개하여 조국을 광복할 수 있다는 사상을 깊이 있게 반영함으로써 혁명가의 빛나는 형상을 보여주었고, 높은 예술성과 고상한 사상성이 결합된 불멸의 대작이라는 것이다.

‘불멸의 대작’ 또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이란 그들이 말하듯 “높은 예술성과 고상한 사상성의 결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 사회가 요구하는 공산주의적 혁명정신을 잘 고취시킨 작품을 의미한다. 북한에서 문학예술작품의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은 공산주의적 사상성이 얼마나 잘 드러났느냐이다. 북한은 문학예술을 “당의 정책을 구현하여 근로대중을 공산주의적 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 당의 힘 있는 무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예술 그 자체의 미적 추구가 목표가 아니라 혁명사상의 전파, 인민에 대한 교양이란 목적성과 이데올로기성에 더 큰 비중을 둔다는 의미이다.⁴⁾

장편소설 『피바다』는 소위 집체창작이라는 혁명대작주의 원칙에 의해 인민들을 혁명사상과 공산주의 세계관으로 무장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⁵⁾ 여기서

2) 위의 책, 131쪽.

3) 이명재 편, 『북한문학사전』, 국학자료원, 1995, 1096쪽.

4) 송명희, 「북한 소설 『한 자위단원의 운명』의 공산주의 인간학과 전형」,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3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1년 12월, 119쪽.

5) 『피바다』는 집체작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그 작자는 석윤기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 신형기, 위의 책, 120쪽 각주 참조.

그런데 석윤기는 『피바다』가 창작될 당시 <4·15 창작단>의 단장으로 알려져 있다(황석영, 『사람이 살고 있었네』, 시와 사회사, 1993, 185쪽). 따라서 그 개인의 작품이라는 말인지, 아니면 당시 창작단의 대표로서 석윤기의 작품이라고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집체창작’이란 공산주의의 특성인 집단성을 작품창작에 이용한 것으로 여러 사람의 창조적 지혜와 힘에 의해서 창작된 작품을 일컫는 말이다. 집체창작은 집체적 지혜에 의거하여 인민들을 혁명사상으로 교양할 수 있고, 사상적 예술적으로 교양할 수 있는 우수한 문학작품을 더 성과적으로 창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북한은 1967년 이래 문학에서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을 위해 김정일의 주도하에 ‘4·15 창작단’, ‘백두산창작단’과 같은 창작단을 구성하여 혁명대작을 만들어냈다.⁶⁾

본고는 ‘3대 고전’의 하나로 불리어지는 『피바다』를 연구함에 있어 첫째, 인물창조에서 ‘공산주의 인간학’이라는 주체문예의 창작원리를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고찰한다. 둘째, 『피바다』의 주인공 ‘순녀’가 무지하고 순박한 산골 아낙네에서 어떠한 과정을 밟아 주체형 공산주의자, 즉 공산주의적 인간형으로 성장해 가는가를 ‘성숙의 플롯’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전자는 북한문예이론에 입각한 연구이며, 후자는 일반문학이론에 의한 연구지만 둘 사이의 깊은 상관관계가 본 연구에 의해서 밝혀질 것이다.

II. 『피바다』와 공산주의 인간학

북한은 김일성의 혁명사상 및 당의 노선과 정책을 정확히 반영시키기 위해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바탕을 둔 문예이론, 즉 주체문예이론을 1970년대부터 구체화시킨다. 주체문예이론이란 주체사상에 근거하여, 이를 문예창작에까지 확대시킨 것으로, 문학예술에서 주체의 확립과 본질적인 내용을 과학적으로 밝혀 문학예술을 시대의 현실적 조건과 그 자체의 발전요구에 맞게 창조 발전시킨 것이다. 한 마디로 주체문예이론은 민족문예의 형식과 사회주의 이념의 결합으로 귀결된다.

하지만 민족문예형식이란 혁명성에 바탕을 둔 문예를 지칭하는 개념에 불과하며, 사회주의적 이념이란 것도 당의 유일사상으로 숭앙되고 있는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의미한다. 주체문예이론은 예술적 형상과 생활화폭을 통하여 당의

6) 이명재, 앞의 책, 1002-1003쪽, 또는 김재용, 앞의 책, 218쪽 참조.

유일한 지도사상인 김일성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정책노선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혁명투쟁의 승리와 건설사업의 성과를 문학예술을 통하여 추구하고, 이를 진작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김일성에 대한 충성의 강요에 다름 아닌 것이다.⁷⁾

『피바다』의 인물창조는 주체문예이론의 형성에 깊이 개입한 김정일이 1980년대에 접어들어 ‘종자론’과 함께 내세운 ‘문학은 인간학’이라는 문예창작이론에 의해서 해석이 가능하다. ‘문학은 인간학’이란 ‘공산주의 인간학’이 창작원리의 중심이 되는데, 이 인간학의 중심에는 김일성이 놓여져 있다. 즉, 난관극복의 인간의지를 김일성의 투쟁적 생애에서 구하는 일률적이고 도식적이며, 공산주의라는 이념에 예속되어 있거나, 그 이념에 복무하거나, 그 이념을 위해 투쟁하는 인간형을 말한다.⁸⁾

김정일은 “문학은 인간학입니다. 인간생활을 체험하고 인간수업을 하여야 인간학이 나오지 허공에 떠서 어떻게 인간학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들끓는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생활체험을 축적해 나가며 현실 속에서 사색하고 글을 써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소위 ‘문학은 인간학’이라는 김정일의 문예창작이론은 인간의 진실한 체험에 충실한 문학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들리지만 실은 ‘공산주의 인간학’이 창작원리의 중심이 되는 이론이다.

1960년대부터 북한에서는 혁명적 문학예술은 공산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인간들과 그들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커나가는 과정을 그리는 ‘공산주의 인간학’이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으며, 작가들이 공산주의적 인간을 창조해야 한다는 요구가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70년대 이후는 주인공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커나가는 과정을 오직 수령의 가르침과 감화에 의한 것으로 그려야 한다고 여기기 시작한다. 즉, 수령의 가르침대로 주체사상을 실천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를 그리는 것이 새로운 공산주의 인간학이며, 주체의 인간학의 목표였던 것이다.⁹⁾ 다시 말해서 북한문학에서 주체의 인간학은 수령의 가르침대로 주체사상을 실천하는 주체형 공산주의자를 가리키며, 무조건 수령을 따

7) 권영민, 『북한의 문예이론과 문예정책』, 『북한의 문학』, 권영민 편, 을유문화사, 1990, 67-70쪽.

8) 이재인, 『북한문학의 이해』, 열린길, 1995, 89-90쪽.

9) 신형기, 앞의 책, 29쪽.

르는 일편단심을 갖는 일, 즉 공산주의적 의리와 혁명적 지조를 지키는 것이 그 요건이다.¹⁰⁾

그런데 북한사회에서 ‘주체형 공산주의자’는 당위적 가치일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들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 현실적 목표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 지도부는 ‘역사’와 ‘당위’와 ‘현실’을 활용하고 있다. 즉, ‘역사’ 속에서 혁명전통의 담지자로 추앙하는 ‘항일유격대원’으로, ‘당위’에서의 전형은 문학예술작품에 그려지는 ‘주체형의 인간’으로, 그리고 ‘현실’에서의 전형은 ‘숨은 영웅’들로 그려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주체형 공산주의자’라는 말을 쓰면서 인간개조작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왔다. 이 과정에서 당 지도부는 역사 속의 항일유격대원과 문학예술 작품 속의 ‘주체형 인간’을 현실에서 ‘구현한’ 인물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것이 1979년부터는 ‘숨은 영웅들을 따라 배우는 운동’으로 나타났다. ‘숨은 영웅’¹¹⁾은 당 지도부가 대중들에게 요구하는 ‘주체형 공산주의자’의 전형으로 인식되며, 이는 김정일이 말한 “개인의 이익이나 공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영웅적 삶¹²⁾을 사는 인물이다.

『피바다』의 시대적 배경은 일제치하로서 주인공 순녀는 혁명에는 무지했던 평범한 시골여인네였으나 남편이 왜병에 희생된 후 유격대 공작원 조동춘의 도움으로 점차 항일무력투쟁의 용감한 여성전사요, 주체형 공산주의자로 성숙하는 인물이다. 그녀는 ‘현실 속의 숨은 영웅’이라기보다는 항일혁명투사, 즉 ‘역사적 영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1960년대부터 항일혁명투사들은 공산주의자의 전형으로 간주되었으며, 혁명에 자신을 바친 투사들은 새 공산주의 인간학의 훌륭한 전거였다.¹³⁾

10) 신형기·오성호, 『북한문학사』, 평민사, 2000, 267쪽.

11) 김재용은 ‘숨은 영웅’을 주체형의 긍정적 인물이며, 그들이 생활하고 싸우는 현장이 극히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생활의 현장이며, 주인공도 비범한 인물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보통사람이라는 점에서 60년대 중반 이후 북한소설의 주체형의 영웅적·긍정적 주인공들과는 변별되는 80년대적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김재용, 「1980년대 북한소설문학의 특징과 문제점」,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지성사, 1994, 260-263쪽.

12) 이종석, 『현대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1995, 84-86쪽.

순녀는 총을 맞은 유격대 공작원 조동춘을 감자굴에 숨겨주는데, 왜병은 막내아들 을남을 인질 삼아 그가 숨긴 곳을 대라고 다그친다. 하지만 아들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를 절대절명의 위기적 상황에서도 그녀는 자백을 하지 않으므로써 혁명을 배신하지 않는다. 즉,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 즉 자식의 목숨까지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영웅적 삶을 보여준다. 아들의 목숨, 즉 개인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여기며, 아들 을남이 왜병의 총을 맞고 죽은 다음에는 울부짖는 딸 갑순을 향해 “혁명을 하자면 가슴 아픈 일도 겪어야 한다. 이번 싸움을 끝내놓고 울 때는 울더라도 지금은 울음을 거두어라. 지금은 원수를 갚아야 할 때다.”라고 준엄하게 꾸짖는다. 그리고 부녀회장으로서 빈틈없이 주어진 혁명과업을 수행한다. 순녀는 어머니로서의 모성애보다도 혁명적 동지애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며, 항일혁명투쟁의 과업 수행을 어머니의 길보다 더 중시하는 인물로 극적 변화를 이룬다. 결국 순녀는 아들의 생명보다도 정치적 생명을 우선시하는 정치 도덕적 원리를 실천함으로써 마침내 공산주의자의 전형, 즉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

만일 자기의 그 어떤 행위로써 아들을 구할 수만 있다면 어머니는 나무 톱으로 자기를 켜내도 웃으며 죽을 것이었다. 그러나 혁명만은 배신을 할 수가 없었다! 오늘은 혁명을 위해 내가 죽고 내 아들이 죽지만 만약 혁명이 없다면 세상의 모든 어머니와 모든 아이들이 죽어야 할 것이다.¹⁴⁾

그야말로 순녀는 공산주의 인간학이라는 이념에 예속되어 있으며, 그 이념에 복무하는 인간형, 혹은 그 이념을 위해 투쟁하는 인간이다. 즉, ‘역사’ 속에서는 혁명전통의 담지자로 추앙하는 ‘항일유격대의 상동지구 부녀회장’이지만 ‘당위’에서는 당지도부가 인민대중에게 요구하는 ‘주체적 인간형’이며, ‘현실’에서는 인민대중의 혁명위업 달성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영웅이다. 한 마디로 순녀는 항일무장투쟁의 참된 주인공으로서 김일성이

13) 신형기, 『북한소설의 이해』, 30쪽.

14) 『민중의 바다』(下), 한마당, 1988, 286쪽.: 『피바다』가 남한에서 출판될 때에 『민중의 바다』로 바뀐 것은 원제목의 선연함을 쉬 받아들이기 어려운 국내정서 때문이라고 출판사는 밝히고 있다.

교시한 공산주의적 인간형과 세계관을 제시하는 전형인 것이다. 즉,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참된 주인공으로서 어떻게 살고, 일하며, 투쟁할 것인가를 인민을 향해 교시하는 전형이다.

북한문예에서 전형이론은 첫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이론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둘째로는 ‘전형적인 인물’의 대표적 인간형으로 김일성을 명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요구 때문에 더욱 강조된다. 그리고 그들의 리얼리즘이 개별적인 것에서 보편적인 것을 찾아내고, 보편적인 것에서 개별적인 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원칙과 관련된다. 그리고 전형 창조 원칙은 ①근면성, ②자기사업에 대한 영예감, ③당과 조국 앞에서의 헌신성, ④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강인성과 불요불굴의 영웅성, ⑤동지에 대한 우애와 협조, ⑥집단에 대한 충성, ⑦전진과 혁신 등이다.¹⁵⁾

순녀는 전형 창조의 일곱 가지 원칙에 모두 부합되는 인물이다. 즉, 열심히 노동하는 근면한 여성이며, 상동지구 부녀회장으로서 혁명에 가담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당과 조국 앞에서는 자식의 목숨까지도 바쳐 헌신하는 인물이다. 광산에서 폭약을 빼돌리는 공작임무의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며, 왜병의 고문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성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또한, 그녀는 유격대원 조동춘에게 동지애를 발휘하며 능동적으로 협조하는 인물이며, 조국이라는 집단에 충실하며 혁명을 향해서 전진하고 자기를 혁신하는 영웅적 인물인 것이다.

그리고 순녀는 주체소설의 긍정인물들에게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의 자질’, 다시 말해서 계급적 자질을 갖추고 있다. 그녀는 부모도 없이 지주 황희도네집 부엌데기로서 남의집살이를 해온 무산계급 출신으로 남편과 아들을 왜병에게 잃는 모진 시련과 고통을 겪는다. 모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녀가 얻은 아픈 교훈은 깨우침의 실마리로 작용한다. 따라서 작품은 주인공 순녀를 비롯하여 남편 윤섭과 원남, 갑순, 을남 등 일 가족 모두가 일제를 상대로 한 혁명대열에 참가하다 죽거나 참가하게 되는 서사구조를 통해 항일무장투쟁만이 피바다에 잠긴 조국을 구원하고 조선혁명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정당한 길이라는 주제를 뚜렷하게 형상화한다.

15) 홍기삼, 『북한의 문예정책과 문예이론연구』,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979, 65-66쪽.

그리고 작품은 순녀를 비롯한 인민대중과 유격대원 조동춘 등을 긍정적 인물로, 구장 변장국, 광산주 강봉규, 헌병오장 구마모도, 수비대장 호소가와 등 왜병과 그에 동조하는 조선의 지배계급을 부정적 인물로 전형화함으로써 이분법적이고 도식적인 전형성과 계급결정론을 철저히 따르고 있음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소설의 인물창조는 단순히 미학상의 문제로 고려되지 않았으며, 결국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이라는 당의 정책노선과 인민에 대한 계몽을 목표로 삼는다. 그리고 이것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여 문예창작에 적용시키고자 한 것이 주체문예이론이다.

Ⅲ. 『피바다』와 성숙의 플롯

『피바다』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무지하던 순녀와 그 가족의 공산주의에 대한 각성과 공산주의자로 성숙해 가는 플롯(the maturing plot)을 통해 공산주의 인간학을 제시한다. 순녀의 성숙은 결국 공산주의적 전형으로의 변화인 셈이다. 그녀는 작품이 전개되어 감에 따라 변화하는 입체적 인물로서 그 변화의 과정은 ‘공산주의적 인간형’으로 형성되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즉, 김일성이 제시한 새로운 인간형의 창조라는 개념으로서의 ‘전형화’된 인물인 것이다. 여기서 전형화는 예술성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성에 관한 문제로서 김일성이 교시한 ‘새로운 인간형’의 창조라는 개념과 결합되어 문학예술 창작의 중요한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다.

성장소설(Bildungsroman)¹⁶⁾은 한 사회나 집단 속에 속한 인물이 그 사회가 자신에게 요구하는 역할과 그 세계 속에서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깨닫는 과정을 그린다. 대체로 성장소설은 유년기에서 소년기를 거쳐 성인의 세계로 입문하는 한 인물이 겪는 내면적 갈등과 정신적 성장,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

16) 성장소설, 교양소설, 입사소설, 형성소설, 발전소설 등 다양한 명칭이 유사개념으로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성장소설이란 용어를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기에 이에 따른다.

최현주도 교양, 형성, 입사의 개념을 포괄하는 포괄적 개념의 성장소설을 제안한 바 있다. : 최현주, 『한국성장소설의 세계』 박이정, 2002, 39-40쪽.

에 대한 각성의 과정을 주로 그린다. 즉, 지적, 도덕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상태의 어린이, 혹은 소년의 갈등이 중심을 이루며, 그가 자아의 미숙함을 딛고 일어서 자신의 고유한 존재가치와 세계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으로 끝맺는다.¹⁷⁾ 성장소설은 “주인공의 변화의 양상이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결핍에서 충족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이야기적 특질을 의미하는” 장르이다. 그리고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가 변화하게 되는 계기와 과정, 그리고 그 결과로 구조화된 유형적 특질을 갖고 있는 서사 양식”으로¹⁸⁾ 인식된다.

그런데 성장소설은 자전적 소설이 아닌 만큼 유년기에서 소년기 그리고 성인기에 이르기까지의 일대기를 다 다룰 필요는 없다. 오히려 성인으로 입문하기 전후의 갈등에 작품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피바다』 역시 유년기에서 소년기, 그리고 성인기에 이르는 과정을 다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작품은 순녀가 일본군 자위대에 남편을 잃기 전, 즉 결혼 이후의 시기로부터 발단된다. 그리고 그로부터 10여 년 후 순녀의 가족이 공산주의 혁명대열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되는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

M. 마르쿠스(Marcus)는 이니시에이션(initiation) 소설을 주인공이 성취하는 성숙의 단계에 입각하여 성숙과 각성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세계의 불확실성과 난폭성을 다룰 뿐인 시험적(tentative) 이니시에이션, 주인공이 성숙과 각성의 문턱을 넘어서는 자아발견을 포함하지만 아직도 확실성을 찾아 갈등하는 미완성(uncompleted)의 이니시에이션, 주인공이 완전한 성숙과 각성에 다다르게 되거나 결정적 진로를 발견하는 결정적(decisive) 이니시에이션으로 그 유형을 분류한 바 있다.¹⁹⁾

본고에서는 M. 마르쿠스가 사용했던 ‘시험적(tentative)’, ‘미완성의(uncompleted)’, ‘결정적(decisive)’이라는 개념을 이니시에이션 소설의 유형으로서가 아니라 주인공의 성장의 단계(stage)를 의미는 개념으로 응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마르쿠스의 논의대로 어떤 작품은 시험적 이니시에이

17) 한용환, 『소설학사전』, 고려원, 1992, 241-2쪽.

18) 최현주, 앞의 책, 2002, 36쪽.

19) M. Marcus, 『이니시에이션 소설이란 무엇인가』, 『현대소설의 이론』, 김병욱 편, 최상규 역, 대방출판사, 1986, 464쪽.

선, 미완성의 이니시에이션, 결정적 이니시에이션으로 분류가 가능할 것이지만 결정적 이니시에이션의 경우에 주인공의 완전한 성숙과 각성은 갑자기 결정적 단계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시험적, 미완성의 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결정적 완성을 이루는 서사구조를 갖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인공이 성숙과 각성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세계의 불확실성과 난폭성을 다룰 뿐인 시험적 단계, 주인공이 성숙과 각성의 문턱을 넘어서는 자아발견을 포함하지만 아직도 확실성을 찾아 갈등하는 미완성의 단계, 주인공이 완전한 성숙과 각성에 다다르게 되거나 결정적 진로를 발견하는 결정적 단계의 순서로 『피바다』의 주인공 순녀의 성장과 성숙의 단계를 분석하겠다.²⁰⁾ 실제로 작품에서 순박한 시골 여성 순녀가 혁명대열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공산주의자로서의 성숙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시험적→미완성의→결정적 단계를 차례로 밟아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계속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항에서는 북한사회에서 불멸의 고전적 명작으로 부르는 『피바다』를 성장소설이라는 관점에서 주인공 순녀의 의식의 변화와 성숙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플롯을 분석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북한사회에서 요구하는 주체형 공산주의자로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 성장소설이 보여주는 주인공의 성장과 성숙의 통과과정과 유사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숙의 플롯이야말로 주인공의 성장이 독자의 성장을 돕는 특수성으로 인해 인민을 교양시킨다는 주체문예이론의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플롯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 시험적 단계

시험적 단계는 주인공이 성숙과 각성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세계의 불확실성과 난폭성을 다룰 뿐인 단계이다. 작품에서 시험적 단계는 작품 전체 5편 가운데 제 1편에 해당되는데, 주인공 순녀가 남편 윤섭과 같이 배나뭇골에

20) 필자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의 하나인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동일한 방법론으로 분석한 바 있다. : 송명희, 앞의 글, 115-143쪽.

서 살아가던 시기로부터 상동마을에 들어가는 시기까지가 포함된다.

작품은 서두의 불순한 날씨에 대한 묘사로 발단되며, 음침한 봄 날씨처럼 불안한 시절을 예고하고 있다.

유난스런 날씨였다.

봄이면 꽃이 피고 새가 운다지만 이 해의 봄은 야단스럽기만 하다.

우르르 하고 시꺼먼 구름이 달음박질쳐 오더니 하늘땅이 온통 캄캄해졌다. 둔덕의 풀밭도 부처산기슭의 나무숲도 막 몸부림을 치며 설레인다. 기르마고개 밑 연자방앗간에서는 무엇이 와지끈하고 부서져나가는 소리가 나고 그 옆의 세 그루 백양나무는 방금 넘어질 듯이 몸을 뒤흔더니 마침내 그 우듬지에서 까치둥우리가 허물어 내렸다.(상권 5쪽)

발단 모두(冒頭)의 야단스런 봄 날씨에 대한 시각적 청각적 묘사는 불길한 분위기를 창조하며, 주인공 순녀의 내면적 불안감, 나아가 순녀 가족과 그 마을에 닥칠 비극적 운명을 암시한다. 작품이 전개되어 나갈수록 불안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며, “왜놈들의 종살이”와 “지주놈의 소작살이”에 저항하던 남편 윤섭이 왜군 토벌대에 붙잡힌 달삼을 도망치게 하고 붙들려 화형에 처해지는 상황까지 이야기가 전개된다.

순녀의 남편 윤섭은 왜놈에 저항하여 싸워야한다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진 인물로서 ‘왜놈’의 조선동포에 대한 지배체제와 ‘지주’의 가난한 사람의 지배체제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정도로 발전된 의식의 소유자이다. 이에 비하여 순녀는 지극히 소박한 의식을 가진 시골 여인에 불과하다. 그녀는 남편의 일제와 맞서 싸워야한다는 말에 기껏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왜놈들은 대포도 있고 총도 많고 술한 군대들이 있다던데요……”라고 회의를 인몰이다. 또한, 아들 원남이 공산당이 뭔지 아느냐는 질문에도 “공산당? 몰라. 그전에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들으니 공산당이 나와서 우리 없는 사람들을 잘살게 해주더러만 엄마는 그런 사람 만나보지 못했다. 무슨 신신 같은 것이겠지.”(상권 57쪽)라는 자신 없는 대답을 할 뿐이지만 막연하게나마 공산당을 인민을 해방시켜주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남편 윤섭이 “원수를 갚아라”는 유언을 남기고 왜병에게 처형되었을 때에도 마냥 슬픔으로 통곡하는 보통여인이며, “나 혼자 힘으로라도 저 애들을 길러야지요. 그것이 그리고

따뜻하게 나를 위해준 당신에 대한 도리이지요. 아이들이 다 자랄 때까지는 나 혼자서라도 이를 악물고 살아나가겠어요.”라고 다짐하는 그저 평범한 여인이다.

순녀는 남편이 죽고 배나뭇골이 완전히 초토화되자 마을을 떠나 친정 사촌 오라버니가 살고 있는 별재마을을 찾아간다. 하지만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그곳 역시 토벌을 당하여 황폐화되었으며, 오라버니 역시 토벌대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앞길이 막막해진 그녀는 절망하지만 다행히 같은 처지의 노인 가족을 만나 백두산 인근의 상동마을로 들어가 정착한다. 제 1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녀는 항일유격대에 대해서 별재 노인으로부터 듣고 “불쌍한 우리 아이들, 왜놈 ‘토벌’에 아버지를 잃은 외로운 저 어린 것들을 지켜주고 건져줄 의로운 군사가 이 세상에 있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라고 막연히 감사하는 긍정적 마음을 갖게 된다.

여기까지 순녀가 겪은 세상은 지주의 착취와 학대에 시달리며, 쫓기듯이 살던 곳을 등지고 떠나야 하는 시험과 고통으로 가득 찬 곳이다. 더욱이 지주집의 부엌데기로 서러움을 당하고 있는 처지의 자신과 도망쳐 결혼한 평생의 반려자요, 의지처인 남편을 왜군 토벌대에게 잃고 살던 마을을 등져야 하는 혹독한 시련의 시기였다. 그러나 이 시험적 단계에서 순녀가 겪은 시련은 세계의 난폭성을 확인시켜줄 뿐 아직 그녀를 주체형 공산주의자로 성장시키는 성숙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2. 미완성의 단계

미완성의 단계는 주인공이 성숙과 각성의 문턱을 넘어서는 자아발견을 포함하지만 아직도 확실성을 찾아 갈등하는 단계이다. 제 2편의 배경은 배나뭇골에서 상동마을로 옮겨진다. 아이들을 데리고 상동마을에 정착했을 때에 어린 아기였던 을남의 나이가 열 살 정도의 소년으로 자랄 만큼의 세월이 흐른 뒤이다. 이곳에서 차츰 생활의 안정을 찾아갈 즈음, 순녀는 장남 원남과 딸 갑순이 밖으로 나돌자 불안감에 휩싸인다. 그녀의 불안감은 마치 10여 년 전 배나뭇골에서 남편 윤섭이 마을에 공산당을 만든다면서 밖으로 나돌던 때의 불안감과 그대로 닮았다.

원남이가 동네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매사에 앞줄에 나서는 듯한 눈치 같아서 그것이 대견한 이상으로 미타하였고 공부도 못한 아이들이 약화에 드나들면서 공책이요 책 같은 것들을 날라 들이는데도 기특하게만 생각할 수 없었다.

바로 남편이 그랬었다. 남편 역시 책들을 끼고 다니고 마을 공론의 앞장에 서고 어딘가 밤길을 자주 걷고 그러다가 종시 그 횡액을 겪었던 것이다.(상권 176쪽)

순녀는 아들 원남을 향해서 “원남아, 나는 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마는 왜 그런지 마음이 놓이지 않는구나.”라고 불안감을 토로하는가 하면 “만약 너희들이 잘못되면 내가 누굴 믿고 살겠니?”라고 아들을 만류한다. 이에 자식들은 “어머니, 저희들이 왜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잘 압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어머니를 좀더 일찍 깨우쳐주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 이때의 깨우침이란 “혁명의 앞길을 내다보며 밝은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혁명의 길에 대한 깨우침이며, “가만히 앉아서 억압과 천대를 감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공산주의자로서의 깨우침이다.

“어머니, 우리가 하루라도 사람답게 살려면 언제나 이 모양대로 지낼 수는 없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까?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저 왜놈들한테 얼마나 악착하게 짓밟혔는가를… 그런데 그놈들은 점점 더 우리를 악착하게 짓밟으려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살다가 죽어야 사람답게 갑니다. 사람답게 살자니 왜놈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상권 200쪽)

원남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왜놈의 종살이에서 벗어나려는 저항과 혁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머니 순녀에게 강조한다. 딸 갑순도 “온 나라가 왜놈의 피바다에 잠기지 않았어요?”라고 독립을 찾기 위한 혁명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이에 순녀는 “아이들 말이 천만 번 옳다. 바로 그런 까닭에 어머니의 가슴은 다시금 불안에 후둑거리는 것이었다.”라고 독립의 필요성과 아이들의 혁명 참여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과거에 남편이 목숨을 잃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아이들이 참변을 당할까봐 불안해한다. 즉, 조선민족으로서의 민족의식과 어머니로서의 모성에 사이에서 갈등한다.

하지만 유격대 공작원 조동춘의 출현은 그녀로 하여금 혁명에 확실성을 갖도록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먼저 그는 아들 원남을 향하여 “원남 동무에게도 여성들의 힘을 과소평가하는 사상이 있는 것 같소.”라고 원남의 페미니즘 의식의 결핍을 지적한다. 즉, 여성도 사회적 해방을 위한 혁명대열에 참여함으로써 남녀평등을 구현할 수 있다는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또한, 그는 “조국광복회 10대 강령 72조에는 남녀평등문제를 지적하면서 부녀의 사회상 대우를 제고하고 여자의 인격을 존중히 할” 것이 명시되어 있으며, “조국을 광복하자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부녀들의 힘을 반드시 조직 동원해야 한다는” 것을 환기시킨다. 『피바다』에서 주인공을 여성으로 설정한 이유가 조동춘의 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힘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혁명의 대열에 참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남녀평등, 부녀의 사회상 대우 제고, 여자의 인격 존중과 같은 페미니즘을 역설하는 교육자 조동춘과 피교육자인 순녀라는 인물을 등장시킨 것이다.

“우리 머릿속에는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부녀들을 천시해온 낡은 사상이 있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관점을 발로시키는데 이것을 뿌리 뽑자면 아마 간단치 않을 거요. 우리가 관점을 고치는 것과 함께 부녀들 자신들도 자기들의 사회적 해방을 위하여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고… 그래 피차 이런 점을 고쳐가면서 상동지구에서 부녀사업을 추켜세워 봅시다.”(상권 224쪽)

조동춘은 남녀평등은 여성을 천시하는 사상을 뿌리 뽑는 남성들의 의식개혁과 함께 여성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사회적 해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선 때에 가능해진다고 역설한다. 하지만 여기서 여성 해방이란 흔히 남한사회에서 말하는 가부장제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남성과 똑같이 조국광복 투쟁의 대열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에서 여성억압을 계급발생과 동일시하여 계급이 폐지되는 사회구조의 변혁을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처럼 이 작품에서도 남녀평등은 남성과 똑같이 조국해방투쟁에 참여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낸다. 그리고 일제의 억압과 자본가의 억압으로부터 인민해방이 이루어지면 여성해방도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즉, 여성은 인민으로 동일시되어 남성과 똑같이 혁명에 동원되는 대상이지만 남녀의

성별계급이나 성차별 같은 문제에는 전혀 인식이 미치지 않고 있다.

실제 북한은 공산정권 수립 초기부터 남녀평등의 이념을 내걸고 주요 민주 개혁의 일환으로 남녀평등법의 제정 등 법률적·제도적으로는 남녀평등을 뒷받침하는 조처들을 취해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사회주의 변천과정과 김일성체제의 구축 강화과정에서 각 시기마다 국가와 당이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동원하고 이를 위한 정치 사회화를 조직하는 수단으로 남녀평등의 이념이 이용당해 왔다는 지적이 있다. 즉, 외현적 외형적 평등주의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전통적 관념, 태도, 행동 등에서 불평등과 차별이 꾸준히 남아 작용하였다는 것이다.²¹⁾ 실제로 혁명투사로 성숙해간 순녀의 아내나 어머니로서의 역할에는 전통적인 한국여성의 관념과 태도가 그대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순녀는 일개 혈연적 가족주의를 넘어서서 국가라는 확대된 가족주의에 헌신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²²⁾

북한이 1946년 남녀평등법을 제정한 이후, 북한사회가 사회주의 사회로 진입하면 계급문제가 해결되고 더불어 여성문제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공식적 천명으로 인하여 여성문제에 대한 독자적 천착은 반사회적인 일로 간주되었다. 오로지 북한사회의 관심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여성을 동원함으로써 국가적 생산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했을 뿐 남녀불평등 문제나 여성의 정체성 문제가 들어설 수 없었다²³⁾는 지적처럼 이 작품에서도 남녀의 불평등 문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지주와 인민, 왜병과 조선인민의 갈등 구조만이 이분법적으로 나타나 있다.

왜놈을 미워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도 없으며 원썩을 갚자면 왜놈들과 싸워야 한다는 유격대 공작원의 말을 듣는 지금 어머니는 이미 놀라지도 두렵지도 않았다. 유격대공작원이 나타난 그 다.(상권 235쪽)

21) 이은숙, 『여성과 가족』, 북한개론, 최명 편, 을유문화사, 1991, 350-352쪽.

22) 이 작품이 창작될 당시 북한은 김일성을 ‘아버이 수령’으로 호칭하고, 확대된 가족의 이미지로서 국가가 강조되며, 김일성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요구했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이종석, 앞의 책, 223-224쪽

23) 김재용, 『북한문학에서의 여성과 민족 그리고 국가』, 『분단구조와 북한문학』, 소명출판, 2000, 247-249쪽.

조동춘의 격려로 순녀의 의식의 성장은 급격하게 일어난다. 인용문은 왜놈을 미워하는 감정적 반응은 아무 소용이 없으며, 왜놈들과 싸워야한다는 적극적이고 투쟁적인 의식이 순녀에게 싹틔음을 보여준다. 조동춘은 다시 순녀를 향해 혁명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우는가 하면, 나라와 고향과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품은 원한을 풀기 위해서는 오직 혁명만이 있을 뿐이라고 격려한다. 특히 “가난하고 천대받는 우리들이 혁명을 해야 나라를 찾을 수 있고, 어머니와 같이 가슴속에 맺힌 그 원한도 풀 수가 있습니다.”라고 혁명을 해야만 나라도 찾고, 가족을 지킬 수 있으며, 가족의 원한을 풀 수 있다는 말은 순녀가 자식들의 안전과 혁명과업 사이에서 느끼던 갈등을 말끔히 해소시켜준다. 성안 장거리의 잡화상에게 쪽지를 전달하라는 첫 임무가 순녀에게 부여된다.

여기서 조동춘은 순녀의 각성을 돕는 교육자이자 조력자²⁴⁾의 모습으로 제시된다. 만약 조동춘의 격려와 교육이 없었다면 순녀의 각성은 쉽게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신형기는 이 둘의 관계를 사제관계로 파악한다.²⁵⁾ 문제는 이 작품에서 남성은 교육자, 여성은 피교육자의 이미지로 제시됨으로써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이미지를 생산하고 있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여성 혁명전사의 성숙 과정에서 남성 교육자의 절대적인 영향을 그림으로써 궁극적으로 여성을 의존적인 존재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단계는 주인공이 성숙과 각성의 문턱을 넘어서는 자아발견을 포함하지만 아직도 확실성을 찾아 갈등하는 미완성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3. 결정적 단계

결정적 단계는 주인공이 완전한 성숙과 각성에 다다르게 되거나 결정적 진로를 발견하는 단계이다. 순녀는 미완성의 단계에서 조동춘의 교육에 의해서

24) 여기서 조력자는 주체인 순녀의 성장을 돕는다는 의미에서 사용하였다. 조력자(the helper)는 프로프의 『민담의 형태론』에서 작중인물을 기능이란 측면에서 7가지 유형의 인물로 압축하여 분류한 가운데 하나이다. : 조남현, 『소설신론』, 서울대출판부, 2004, 259쪽에서 재인용.

25) 신형기, 앞의 책, 126쪽.

이미 어느 정도 성숙과 각성에 도달했으며, 혁명의 임무도 수행한다. 따라서 『피바다』에서의 결정적 단계는 순녀가 무력혁명에 직접 가담하는 혁명투사로 체화되고 성숙함으로써 결정적 완성을 보여 주는 단계를 의미한다.

꼭지 전달의 연락책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순녀는 상동마을 구장 변장국이 통행증이라고 써준 것이 실은 수상하니 몸수색을 단단히 하라는 내용이 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순녀는 “자기가 무식하다는 것, 아무리 마음이 태산 같아도 이 친자식, 친동생 같이 생각되는 다정한 사람들을 도울 힘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사무치게 느끼게 된다. 그래서 아들 윤남에게 글을 배워 문맹을 깨우치게 된다. 글을 배움으로써 순녀의 정신적 성숙은 가일층 박차를 가하게 된다. 순녀의 의식의 각성은 조동춘에 의해서 촉발되었지만, 의식 발전의 상당부분은 독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녀는 혁명운동에 참여하는 자식들의 안전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제비와 같이 자식들과 헤어지지 않고 이 험한 세상을 함께 날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제 곁에 할일 없이 앉아 있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가는 길을 함께 가야 하리라는 생각”(상권 285면)을 할 정도도 의식의 발전을 이룬다. 따라서 장남 원남이 덕골 뒷산에서 왜놈을 때려죽이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아들의安危에 대한 걱정보다는 아들이 읽던 교양자료를 찾아 읽으며 혁명의 대열에 마음속으로나마 동참하고자 한다. 그녀는 “혁명이란 어머니의 품과 같이 살뜰한 것”, 또는 “햇빛과 같이 따사로운 것”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불안감에서 벗어나며, 아들 원남을 유격대에 보내자며 군복을 짓는 적극성까지 발휘한다. 그리고 원남과 이별하는 순간에도 눈물 대신에 혁명에의 벽찬 설렘을 느낀다. 순녀는 독서를 통해서 항일의식뿐만 아니라 계급의식까지 각성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성숙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 사이는 아득한 옛날부터 억누르고 억눌리는 사이라는 것도 그래서 계속 계급투쟁이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읽으니 언젠가 원남이가 하던 말이 바로 이 책속에 있는 말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여간 신통하지 않았다. 그래서 책장에 정신이 끌리기 시작하여 한자두자 뜯어보노라니 제 손으로 일해서 세상 사람들을 입히고 먹여 살리는 노력자 대중이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가장 천대하고 못살게 하는 자본주의 사회는 썩어빠진 사회라 곧 망하고 만다는 이치를 날날이 밝

혀 놓았다.(하권 6쪽)

인용문은 단순히 사회주의적 조국해방만이 아니라 계급해방이 혁명의 목표라는 것을 보여준다. 순녀의 의식은 상동 마을에 부녀회라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진해서 조동춘에게 제안할 정도로 성장하게 된다. 또한, 그는 더 이상 짓밟히고 빼앗기면서 눈물만을 짓는 수동적 인물이 아니라 자식을 자발적으로 혁명의 길에 내세우는 인물로 발전한다.

어머니가 이미 자기 개인이 아니라 고통 받는 한 계급의 형제들을 구원하고 싶다는 그 충동을 스스로 의식하고 그것을 남이 알아들게 말로 번져 놓았다는 이 사실은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사변이었다. 어머니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남에게 짓밟히고 빼앗기면서도 눈물밖에 지을 줄 모르던 최순녀, 남편을 원수에게 무참히 잃고도 통곡밖에 할 줄 모르던 안해, 그리고 자라는 자식들에게 행여 무슨 일이 생길까봐 바람소리에조차 소스라치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오늘은 아들딸들을 어엿이 혁명의 길에 내세워놓고 자신은 스스로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한 겨레, 한 계급의 형제들을 위하여 이처럼 깊은 심려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 어찌 놀랍지 않겠는가.(하권 42-43쪽)

인용문은 순녀의 각성 이전과 이후의 변화된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준다. 이제 순녀의 의식은 아들과 딸의 안전을 걱정하던 한 자식의 어머니가 아니라 한 겨레와 한 계급의 형제들을 생각하는 혁명가로 전환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각성뿐만 아니라 이웃의 영실 어머니를 향해서 “우리 아낙네들이 하나로 뭉치기만 하면 태산도 능히 허물고 바다도 메울 수가 있을 걸세. 그러니 왜놈쯤 못 때려 엮겠나?”라고 말하는 적극적인 교육자의 입장으로 변화하여 상동마을에 부녀회를 조직한다. 그리고 죽은 남편을 처음으로 동지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폭동에 쓸 화약을 광산에서 빼내는 어려운 공작임무를 광산주의 첩인 귀순을 설득하여 성공적으로 완수한다. 돌아오는 길에 구장 변장군의 의심을 사서 모진 고문을 당하지만 결코 자백을 하지 않으며 혁명에 대한 신념을 더욱 굳게 다져 나간다. 작품은 위기의 절정에서 순녀가 자식의 목숨을 바칠지언정 혁명을 배신하지 않는 지조, 육체적 생명보다 정치적 생명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한 자식의 어머니에서 벗어나 ‘한 겨레와

한 계급의 형제들을 구원하는' 혁명가로 변화되었음을 확인시켜준다. 북한사회는 사람을 육체적 생명과 사회정치적 생명으로 이분화시키고, 이 중에서 사회정치적 생명을 육체적 생명에 우선시키며, '영생불멸'하는 귀중한 것으로 보는데, 이는 바로 사회정치적 생명을 수렁이 준다고 보기 때문이다.²⁶⁾

변할 수가 없었다. 눈썹 하나도 이 마당에 아들을 두고 슬퍼하는 이외에 그 어떤 다른 감정이나 다른 타산이 순결한 모성애에 불타는 어머니의 가슴에 깃들일 수 없었다. 만일 자기의 그 어떤 행위로써 아들을 구할 수만 있다면 어머니는 나무 톱으로 자기를 썬대도 웃으며 죽을 것이었다. 그러나 혁명만은 배신할 수 없었다! 오늘은 혁명을 위해 내가 죽고 내 아들이 죽지만 만약 혁명이 없다면 세상의 모든 어머니와 모든 아이들이 죽어야 할 것이다.(하권 286-287쪽)

결국 아들 을남은 조동춘의 총을 맞은 구마모도의 마지막 총탄에 죽는다. 갑순은 울부짖지만 순녀는 “크나큰 슬픔을 디디고 거연히 머리 쳐든 투사의 모습”으로 눈물 대신 원수를 갚아야 한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북선 상점 지하실에서 열리는 혁명조직책임자 회의에 침착하게 참석한다. 그녀의 의연한 모습을 화자는 “그 침착하고 조영한 것이 다름 아닌 커다란 슬픔 그 자체이며 그것은 바로 피바다 속에서 새롭게 형성된 이 나라 여인들의 새로운 품성”이라고 서술한다. 마침내 순녀는 상동지구 부녀회장으로서 폭동을 지휘하며 호소가와를 총으로 쏘아 죽인다. 즉, 성시를 해방시키는 무력투쟁에도 직접 가담함으로써 조국해방을 이끄는 여성 영웅으로 순녀의 성숙은 완성된다. 그녀는 “인민들과 유격대원들” 앞에서 무력혁명만이 조국광복과 인민의 살길이라는 것을 선동하는 감동적인 연설을 한다.

가난하고 천대받는 우리가 살길은 혁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혁명을 해야 원쑤를 갚고 나라를 찾을 수 있으며 장차 잘살 수도 있게 됩니다. 오늘과 같이 유격대가 총을 들고 우리의 앞길을 헤쳐가고 우리들이 목숨 걸고 싸워갈 때 피바다에 잠긴 우리나라는 반드시 독립될 것이며 광복의 새 아침은 밝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혁명을 합시다. 혁명만이 우리의 살길입니다.(하권 345쪽)

26) 이종석, 앞의 책, 223-224쪽.

그리고 작품은 순녀가 그녀의 자식과 마을의 청년 처녀들을 모두 유격대에 떠나보내면서 염려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동의 눈길로 “아득히 미래로 뻗어있는 드넓은 길-혁명의 길을 뚜렷이 내다보는” 혁명에 대한 낙관적 전망으로 결말을 맺는다. 혁명적 낙관주의를 표현하고 있는 결말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 항일무장투쟁만이 피바다에 잠긴 조국을 구원하고 조선혁명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정당한 길이라는 주제를 뚜렷이 나타낸다.

그런데 순녀가 주체적 공산주의자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전혀 회의나 갈등이 부재하는 성격-특히, 아들 을남이 죽느냐 사느냐는 위기의 절정에서도 “내가 죽고 내 아들이 죽지만 만약 혁명이 없다면 세상의 모든 어머니와 모든 아이들이 죽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며 혁명을 배신할 수 없다는 논리로 아들을 포기하고 조동춘을 살리려 한 태도, 뿐만 아니라 아들의 죽은 뒤에도 울부짖기는커녕 조금의 흔들림이 없이 일사분란하게 성시 해방이라는 혁명의 목표를 완수해 나간 것-으로 그려진 것은 주체의 목적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고 하겠다. 따라서 순녀는 사실적 인물이라기보다는 공산주의적 인간의 창조라는 주체의 목적성에 부합되도록 가공된 이상적 인물이다.

그리고 이 작품의 성장의 플롯에도 불구하고 주인공 순녀는 오류를 겪으면서 자아를 발견하고 인식하며 주체적 자아를 완성하는 개인주의적 이상 성취의 전형적인 성장소설의 주인공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헤겔은 『정신현상학』에서 교양이란 “발전과정을 통하여 직접적인 개별성이 보편성으로 되고 보편성 속에서 개별성이 실현되며 그렇게 됨으로써 최초의 소박한 영혼의 단일성이 대립을 통해 매개된 전체성으로 일어서게 되어 영혼의 추상적 보편성이 구체적 보편성으로 발전되게 되는”²⁷⁾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순녀는 소박한 영혼의 단일성이 대립을 겪으면서 ‘개별성이 보편성으로 되고 보편성 속에서 개별성이 실현되는’ 발전과정을 겪는다기보다는 공산주의가 요구하는 집단성 속에 개인을 무조건적으로 일치시켜 나가는 인물, 즉 자아의 주체성을 포기하는 인물이다. 다시 말해서 주체적으로 개인적 자아를 형성하는 개성적 인물이 아니라 공산주의적 인간형이라는 북한사회가 요구하는 획일적이고 집단적인 목표에 자아를 일치시킨 전형적 인물인 것이다.

27) 오한진, 『독일교양소설연구』, 문학과지성사, 1989, 19쪽.

성숙의 플롯을 통해서 시험적 단계에서 미성숙의 단계로, 다시 결정적 단계로 나아간 순녀의 변화는 공산주의 인간학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의식적이고 통제된 과정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자체가 다른 사람을 교육시키고 개발시키는 하나의 교육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²⁸⁾ 이처럼 공산주의적 인간형으로의 성숙을 목표로 한 ‘피바다’식의 성장소설을 우리는 전형적인 성장소설과 구별하여 ‘공산주의 성장소설(교양소설)’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IV. 결론

본고는 3대 고전 또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으로 일컬어지는 『피바다』를 북한의 문예이론에 입각한 ‘공산주의 인간학’이라는 관점과 인민을 공산주의 혁명사상으로 교양시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구조인 ‘성숙의 플롯’이라는 두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주인공 순녀는 시련의 단계, 미완성의 단계, 결정적 단계를 거치면서 미자각 상태에서 자각 상태로, 다시 미성숙의 상태에서 성숙의 상태로 성장하는 플롯을 통해서 주체형 공산주의자로 완성된다. 순녀는 무지하고 순박한 시골여성에서 항일무장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투사로 변화하는 입체적 인물이다. 『피바다』는 순녀의 주체적 공산주의자로의 변화과정을 통해서 조국광복에 남녀의 구별이 없이 참여하는 항일 무장투쟁의 필연성과 정당성을 교시한다.

다시 말해서 순녀는 북한사회가 요구하는 공산주의적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창조된 전형이다. 그녀는 공산주의 인간학을 드러내는 전형적 인물인 것이다. 『피바다』는 이와 같은 전형 창조를 통해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참된 주인공으로서 어떻게 살고, 일하며, 투쟁할 것인가를 인민을 향해 교시한다. 즉, 인민들을 공산주의적 인간관과 세계관으로 교양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주인공의 성장이 독자의 성장을 돕는 성숙의 플롯을 도입했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공산주의 인간학’을 제시하는 인물창조는 이 작품의 목표이며, ‘성숙의 플롯’은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필연

28) 루카치, 『소설의 이론』, 반성완 역, 심설당, 1989, 180쪽.

적으로 요청되는 플롯이라고 할 수 있다.

‘공산주의 인간학’에 입각한 인물창조와 ‘성숙의 플롯’은 3대 고전인 『한 자위 단원의 운명』과 『꽃 피는 처녀』에서도 주인공이 바뀔 뿐 동일하게 반복된다. 이 시기의 3대 고전을 비롯한 항일혁명문학의 재창조는 1967년의 반종파 투쟁²⁹⁾ 이후 유일사상의 체계가 확립되자 북한에서 카프를 평가절하하는 한편 북한문학의 유산으로서 항일혁명문학을 유일한 혁명적 문예 전통으로 평가하기 시작한 사실과 관련된다.³⁰⁾ 즉, 이전에 막연한 줄거리만 전해오던 항일혁명문학을 영화·소설·가극 등으로 새롭게 재창조하는 신비화 과정을 통해서 북한은 인민들을 동질화하고 주민 동원체제를 더욱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³¹⁾ 이야말로 주체문예이론의 궁극적 목표인 것이다. 일찍이 문학예술의 선전선동력에 주목해온 김정일은 생산증대를 위한 경제선동의 주요수단으로 문학을 적극 활용하고자 4·15창작단을 만들고 혁명대작주의 원칙에 따라 3대 고전 등을 집체작으로 완성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의 김정일의 압도적 역할은 그의 후계자로서의 타당성을 인정받는 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주요어 : 북한소설, 피바다, 성장소설, 성숙의 플롯, 공산주의 인간학

29) 1967년 제4기 15차 전원대회를 계기로 북한사회는 고위간부의 숙청과 주체사상을 유일사상체계로 하는 전일화된 사회로 바뀌게 되는 대격변이 일어나게 된다.(이종석, 앞의 책, 214-215쪽.)

30)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217-219쪽.

31) 위의 책, 209-221쪽.

참고문헌

자료편

『민중의 바다』 상·하권, 서울, 한마당, 1988.

논문편

김성수, 「북한에서의 현대소설연구」, 『현대소설연구』 16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2.6

김춘선, 「북한문학의 전개양상과 제 특징」, 『현대소설연구』 11호, 한국현대소설학회, 1999.

송명희, 「북한의 문학과 주체문예이론1-수령형상시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1999.2.

송명희·송경빈, 「북한의 문학과 주체문예이론2 - 7·80년대 중단편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1999.8.

송명희, 「북한의 문학과 주체문예이론 -혁명연극 <혈분만국회>의 역사왜곡과 서사극적 효과」, 『어문논집』 39집, 안암어문학회, 1999.

최정숙, 「<민중의 바다>에 대한 고찰」,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 『남북문학의 비평적 조명』, 백문사, 1990.

최현주, 「한국현대성장소설에 드러난 ‘성장’의 함의와 문화적 양면성」, 『현대소설연구』 11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0.

홍성암, 「북한의 주체문예이론과 소설문학」, 『현대소설연구』 7호, 한국현대소설학회, 1997.

국내저서편

강만길, 『한국현대사』, 창작과비평사, 1985.

강정구 편, 『북한의 사회』, 을유문화사, 1990.

사회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편, 『조선문학통사』 상·하권(북한), 1959.

-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북한의 문예정책과 문예이론연구』, 1979.
 _____, 『북한의 문화예술』, 1981.
- 권영민 편, 『북한의 문학』, 을유문화사, 1989.
- 김성수, 『통일의 문학비평의 논리』, 책세상, 2001.
- 김용직, 『한국현대문학의 사적 탐색』, 서울대출판부, 1997.
- 김윤식, 『북한문학사론』, 새미, 1996.
-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지성사, 1994.
 _____, 『분단구조와 북한문학』, 소명출판, 2000.
- 김재하, 『공산주의 교양과 창작문제』, 조선작가동맹(북한), 1959.
- 김정웅, 『종자와 그 형상』, 문예출판사(북한), 1988.
- 김중희 편, 『북한문학의 이해 I』, 청동거울, 2001.
 _____ 편, 『북한문학의 이해 II』, 청동거울, 2002.
- 김하명, 『조선문학사4』, 사회과학출판사(북한), 1992.
- 류 만, 『조선문학사8(항일혁명문학)』, 사회과학출판사(북한), 1992.
- 민족문학사연구소 편, 『민족문학사강좌 하』, 창작과비평사, 1995.
- 민족통일연구원, 『주체사상의 이론적 변화』, 1993.
-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집필, 『조선문학사(1-5)』(북한), 1977-1981.
- 성기조, 『북한의 비평문학』, 신원문화사, 1990.
 _____, 『사회주의사상통일문학』, 신원문화사, 1990.
 _____, 『주체사상을 위한 혁명적 무기의 역할』, 신원문화사, 1989.
- 신형기, 『북한소설의 이해』, 실천문학사, 1996.
- 신형기·오성호, 『북한문학사』, 평민사, 2000.
- 양호민 외, 『북한사회의 재인식1』, 한울, 1987.
- 역사학연구소, 『강좌 한국 근현대사』, 풀빛, 1995.
- 오한진, 『독일교양소설연구』, 문학과지성사, 1989.
- 윤재근·박상천, 『북한의 현대문학』, 고려원, 1990.
- 이기철, 『분단기 문학사의 시각』, 우리문학사, 1991.
- 이명재 편, 『북한문학사전』, 국학자료원, 1995.
- 이명재 편, 『북한문학의 이념과 실제』, 국학자료원, 1998.

- 이보영, 『성장소설이란 무엇인가』, 청예원, 1999.
- 이선영 · 김병민 · 김재용 편, 『현대문학비평자료집(이북편)』, 태학사, 1994.
- 이재인, 『북한문학의 이해』, 열린길, 1993.
- 이재인 · 이경교, 『북한문학강의』, 효진, 1996.
- 이종석, 『현대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1995.
- 이형기 · 이상호, 『북한의 현대문학1』, 고려원, 1990.
- 이흥구 · 스칼라피노 공편, 『북한과 오늘의 세계』, 법문사, 1986.
- 조남현, 『소설원론』, 고려원, 1982.
- 최동호, 『남북한현대문학사』, 나남, 1995.
- 최 명 편, 『북한개론』, 을유문화사, 1991.
- 최현주, 『한국성장소설의 세계』, 박이정, 2002.
- 통일연수원, 『북한이해』, 통일연수원, 1996.
- 한국정치연구회, 『북한정치론』, 백산서당, 1989.
- 한길문학편집위원회, 『남북한문학사연표』, 한길사, 1990.
- 한용환, 『소설학사전』, 고려원, 1992.
- 한중모, 『주체의 인간학』, 사회과학출판사(북한), 1987.
- 홍기삼, 『문학사의 기술과 이해』, 평민사, 1978.
- _____, 『북한의 문예정책과 문예이론연구』,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979.
- _____, 『북한의 문예이론』, 평민사, 1981.

국외도서편

- 김병욱 편, 『현대소설의 이론』(최상규 역), 대방출판사, 1986.
- 루카치, 『소설의 이론』(반성완 역), 심설당, 1989.
- Brooks, C. & Warren, R.P., *Understanding Fiction*, second edition,
(New York, Appleton-Century-Craft), 1959.
- Hirsh, M., "The Novel of Formation as Genre", *Genre* Vol.X, No3, (Oklahoma UP), 1979.

<Abstract>

A Study on the Communist Character and the Maturing Plot in North Korean Novel *Peebada*

Song, Myung-Hee

This thesis has analyzed North Korean novel "*Peebada*" in terms of 'communist character' and 'the maturing plot.' Soon-Nyu, a heroine, rounds into a subjective communist, undergoing a tentative stage, an uncompleted stage, and decisive one, for she grows into the state of self-consciousness from the unconscious one, and once again the state of maturity from the immature one. She is a round character who changes from an ignorant and naive rural woman into one of the active participants of the anti-Japanese armed struggle. This process of change has organized the maturing plot, so Soon-Nyu, finally, becomes a man of the communist type. "*Peebada*" instructs inevitability and justness of the anti-Japanese armed fight which everyone, men and women all alike, enters for the restoration of independence through the process of change. Soon-Nyu has been created as a model to accomplish the objectives of communist loyalism for the party demanded by North Korean society, the property of laboring classes, and the people's qualities. She is a typical character who presents the communist character. "*Peebada*" enlightens people upon how to live, work, and struggle as a true lead for socialist revolution and construction by the creation of pattern. This work, that is, cultivates people on communist view of human and world. It is considered that maturing plot of the Bildungsroman in which hero(heroine)'s growth helps readers' has been introduced to achieve them.

Key Words : North Korean novel, *Peebada*, Bildungsroman, maturing plot,

communist character